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행사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최전연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 지역봉쇄를 전문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것을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0여일간 전연지역을 봉쇄한 이후 여전히 방역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었다는것이 확증되었다고 하시면서 격리상태에서 생활상불편을 이겨내며 우리 당과 정부의 조치를 한마음으로 따라준 봉쇄지역 인민들과 폭우와 무더위속에서 지역봉쇄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지휘 체계를 완비할데 대한 문제,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를 내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으며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정형을 점검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에 있는 재해성폭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장마철기간 강원도, 황북도, 황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면적은 3만 9, 296정보이며 살림집 1만 6, 680여세대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 침수되고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연계가 붕괴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강원도 김화군, 철원군, 회양군, 창도군과 황해북도 은파군, 장풍군을 비롯하여 피해상황이 혹심한 지역의 주민들이 소개지에서 생활하면서 커다란 생활상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결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우리 국가는 세계보건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는 이 두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립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서 세련된 령도예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어 여러모로 애로와 난관이 많다 해도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바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창건 75돐을 맞이 하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문별과업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큰물피해 복구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피해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발전한 시대적수준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키며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위치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이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큰물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단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피해복구에 동원되는 사람들속에서 방역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복구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서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의 혁명적 본래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다시금 실증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령도에 충실한 군민의 대단결과 협동작전으로 10월 10일까지 큰물피해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당면투쟁과업을 반영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공동명령서를 시달할것을 제의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비상방역전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국가적인 정연한 방역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구적문제를 합의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기구가 자기앞에 부여된 권능을 옹바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군인들과 안전원, 보위원들, 로농적위군 대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냈다고 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사업정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사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모든 경축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준비하여 당창건 75돐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수 있는 대정치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계속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새로 나오는 부서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4) 보기 좋고 향기도 좋은 향오동나무



특음이 우거진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곳곳에는 크고 시원스럽게 생긴 잎과 보기 좋은 나무가 한 향오동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풍치수려한 보통강변과 평양의학대학 앞도로를 비롯한 시내의 거리들에 실하게 자란 향오동나무들이 우거져 이채로운 풍치를 자아내고 있다.

능소화과의 잎지는 넓은 잎키나무인 향오동나무는 높이가 5~8m로서 6~7월에 가지끝에서 연노릇빛 흰색의 큰 입술모양꽃이 고깔모양차례를 이루고 피는데 그 모양이 매우 아름답을뿐아니라 꿀원천으로도 가치가 크다.

향오동나무의 잎은 둥근 달걀모양이거나 심장모양인데 잎 뒷면은 짙은 녹색에서 약간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추위에도 비교적 잘 견디는 것으로 하여 향오동나무는 그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향오동이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는 보기도 좋고 향기도 매우 좋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전까지 《개오동》이라고 하여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었던 이 나무의 생김새와 쓸모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향오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었으며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은 이 나무를 널리 심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향오동나무들은 거리들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 있다.

글 : 본사기자 리철민  
사진 : 본사기자 동창현



# 라선지구의 다양한 생태계 (1) 라선철새보호구



공화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라선지구에 국제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라선철새보호구와 알섬바다새번식보호구, 우암물개보호구들이 있다.

라선철새보호구는 만포와 동변포, 서변포호수와 갈매, 갈발과 논밭, 강어구와 삼각주 등 다양한 습지형태로 이루어진 두만강하구의 3 200여정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 보호구에서는 지금

까지 228종에 4만여마리의 물새들이 관찰되었다.

동아시아에 있는 총 마리의 수의 약 2%에 달하는 1만 2 200마리의 알송오리와 6 500마리의 청형오리, 4 650마리의 검은대기원주오리, 전지구적인 총 마리의 3%에 해당하는 3 100마리의 붉은꼭두오리 그리고 지역이동경로상에 있는 전체 흑고니마리의 7%에 달하는 100여마리의 흑고니와 290여마리의 바다가마우지 등의 물새류들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취약종으로 알려진 바다평 1 990여마리와 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200여마리가 이곳에서 서식하고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라선철새보호구는 2018년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람사르대습지목록)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자기의 고유한 화풍을 창조한 안건

15세기 중엽 대표적인 화가의 한사람인 안건의 산수화를 특별히 잘 그렸으며 수많은 인물화, 상상화, 사군자도 그렸다.

그는 내외의 이름난 명화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면서 요점을 체득하고 장점을 취사선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의 고유한 화풍을 창조하였다.

자연의 풍치를 실감있게 보여주는데 주의가 돌려진 그의 작품들은 당시 화가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으며 회화발전엔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청산백운도》, 《꿈에 본 동산》(《몽유도원도》), 《적벽도》, 《룡》, 《어부》 등과 사시도들이 알려져 있다.

안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해오고있는 《꿈에 본 동산》은 조선봉건왕조의 왕자였던 리용이 꿈에서 보았다는 복숭아동산의 경치를 상상하여 그린 풍경화이다.

안건의 작품들은 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표현력과 힘 있고 아름다운 필치, 풍부한 정서가 잘 나타나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 무더위때 주의해야 할 질병환자들

—당뇨병환자  
땀을 많이 흘려 인체내 수분이 빠지면 혈당수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당분을 함유한 음료보다는 시원한 물이나 보리차 등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오이를 비롯한 당분이 없는 남새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다. 운동은 기온이 내려가는 새벽이나 저녁에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심장혈관계통질병환자  
더위가 심하면 땀이 많이 나면서 탈수상태에 빠질뿐 아니라 피로도 지나치게 확장되기 쉽다.

기온이 29°C 이상이면 심장병 및 뇌졸중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고혈압

**속 달 과 뚝**

◆어머님의 사랑은 늙지 않는다.  
어머님은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는 늙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은 세월이 가고 한생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자식을 둔 골에는 호랑이도 두남을 둔다.  
호랑이와 같은 사냥고 모친 짐승조차도 새끼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찌 자식에 대하여 생각하고 근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사화

# 왜 적을 치자 (3) 글 김정민, 그림 리성일

권기홍은 마음이 언짢아져 자리를 피했다. 그의 눈에도 까닭모를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시각 남산에 있는 조선주돈 왜놈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집에서는 조선군대해산을 통고하는 시위대 부대장들의 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실상 조선황실의 빈약한 재정으로 현재의 군대수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요. 그러나 장교제군은 안심해도 좋소. 사병들은 정리되더라도 장교제군들의 생활은 담보될것이요. 에- 이토통감개신 앞으로 장교양성에 주로 힘을 쏟아야 하는데 대해서 강조하셨소.》

반대머리 하세가와는 원탁앞을 천천히 거닐면서 말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나 장교층을 회유하여 조선군대의 반항을 미리 막으려고 원심을 쓰고있었다.

마루바닥을 두들겨치는 하세가와의 장화소리에 뒤에서

누군가 땅이 꺼질듯싶은 한숨을 내쉬었다.

걸음을 멈춘 하세가와는 잠시 장대를 일별하고나서 신경질적으로 말을 이었다.

《에도,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봉매한 사병들의 오후로부터 소소한 불찰도 있어서서는 안되겠소. 이에 장교제군들이 각별히 협력하길 바라는데요. 제군들은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 즉시 무기와 탄약을 소속황군관에게 인계하고 전원 인솔하여 10시까지 훈련원에 집합해야 하소. 에도, 사병들에게는 도수훈련을 한다고 하시오.》

누군가 뒤에서 의자를 빼격격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명백히 말해주시오. 조선군대의 정령이요, 해산이요?》

하세가와는 그를 매서운 눈초리로 한참 쏘아보더니 칼자루로 마루를 팡 찢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는 칼자루를 꼭 쥐고 장

# 흥미있는 사유지도의 세계

최근 공화국의 조선출판사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가 사람들속에서 예뻐되고 있다.

도서에는 사유지도(Mind Map, iMind Map)의 개념과 그리기규칙, 응용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또한 여러가지 주제의 사유지도들을 삽입하여 인식적효과를 높였으며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단순한 단계까지의 사유지도를 정확히 그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

- ◆ 대뇌의 정통적인 무늬
- ◆ 대뇌의 발달사(사우어)
- ◆ 대뇌의 사유지도 → 사유지도
- ◆ 필기에서 혁신
- ◆ 학습에서 혁신
- ◆ 기억력개발
- ◆ 창조력개발

조선출판사출판사 주주 108(2019)

며 칼을 뽑아 결의 바위를 내리쳤다. 칼날 부러지는 아찔러운 쇠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었다.

《왜놈들이 병영을 둘러싼다.》

누군가 낮으나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병영담당장머로 번득이는 총창들이 보였다.

목이 길쭉한 안경쟁이 왜놈교관이 무기창고앞에 버리고 서서 독살스럽게 조소를 퍼우며 조선군사들을 주시했다.

이 순간 권기홍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졌다.

(나를 지켜주라! 군복을 입은 내가 이렇게 손에서 총을 놓아야 하는가! 한 몸 동이씩 고인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조상의 나라를 밟고다니는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노릇이었다.

그는 왜놈들이 미웠다. 씹어삼키고싶도록 미웠다. 왜놈들이 아니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조상의 매국역적들도 미웠다. 찢어발기고싶도록 미웠다.

이때 대대장의 방에서 심상찮은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대대장실에서 군사 하나가 허둥거리며 달려나오더니 비통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대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자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팽팽하게 조여졌던 금선은 드디어 끊어지고말았다.

권기홍의 정수리로 피가 샅리고 주먹이 으스러지게 쥐어졌다.

《이 흉포한 족발이 왜놈들이, 조선사람이 다 죽은줄 아느냐?》

집에 걸린 왜놈교관은 뒤걸음질치면서 칼집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놈은 미처 칼을 뽑지 못한채 처음에는 머리가, 다음에는 몸통아래에 땅에 떨어져 콩 소리를 내었다.

권기홍은 왜놈의 피가 흐르는 칼을 쳐들며 부르짖었다.

《형제들, 이래도 참을렌가? 망국노로 더럽게 살았는데, 의로운 군사답게 싸우다 죽겠는가?》

《싸우자!》

《왜놈을 치자!》

격노한 병사들이 호응해나섰다.

부위 남상덕이 권기홍의



《름》 (안건 작)

**의사와 약제사**

의사와 약제사가 같이 앉아 낚시질을 했는데 만나칠 이 넘도록 고기가 물리지 않았다.

의사: 《고기들이 미끼를

손을 힘주어 잡았다.

《기흥군!》

《부위님!》

말없는 가운데 두 사나이의 숭볼같은 눈길에 뜨겁게 오갔다.

남상덕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병사들, 나의 지휘를 받으라.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원수를 맞받아나가자!》

무장한 병사들은 《와!》 함성을 지르며 정문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왜놈들이 황급히 총을 쏘았다.

드디어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봉기한 군인들의 눈에서는 불길이 날랐다. 그들은 생사를 가리지 않았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무엇을 겁내랴.

왜놈들의 누린 시체가 병영주변에 너저분하게 깔렸다.

거리에 펼쳐나선 그들을 보고 또 한무리의 왜놈들이 총자루를 내던지고 팔뚝으로 뿔뿔이 내뿜기 시작했다. 일부 병사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흥이지지 말라!》

부위 남상덕이 호령했다.

잠시 총소리가 뜸해졌다.

다. 격진위의 정적... 《어디 상한데 없나?》 남상덕이 권기홍을 바라보

며 물었다.

권기홍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남상덕이도 호걸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웃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총소리를 듣고 립집부대인 2대대의 군인들이 달려왔다.

이리하여 북돋아오는 삼시간에 천수백명도 불어났다.

왜놈들이 또다시 공격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자지러진 총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렸다.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졌다. 중천에 뜬 해도 로연속에서 짐누렇게 타번졌다.

웃oder를 벗어던진 권기홍은 흰 사찌바람으로 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한낮이 지나서였다. 잔들과 밀고밀러오는 산병전열을 벌리고있는 거리로 웬 녀인이 머리에 커다란 함지를 이고 달려오고있었다. 그의 앞뒤에서 총알이 땅에 박히며 먼지를 일으켰다.

《아니, 저 녀인이...》

권기홍은 긴장하게 그 녀자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은 등그랬다.

《화화화!...》